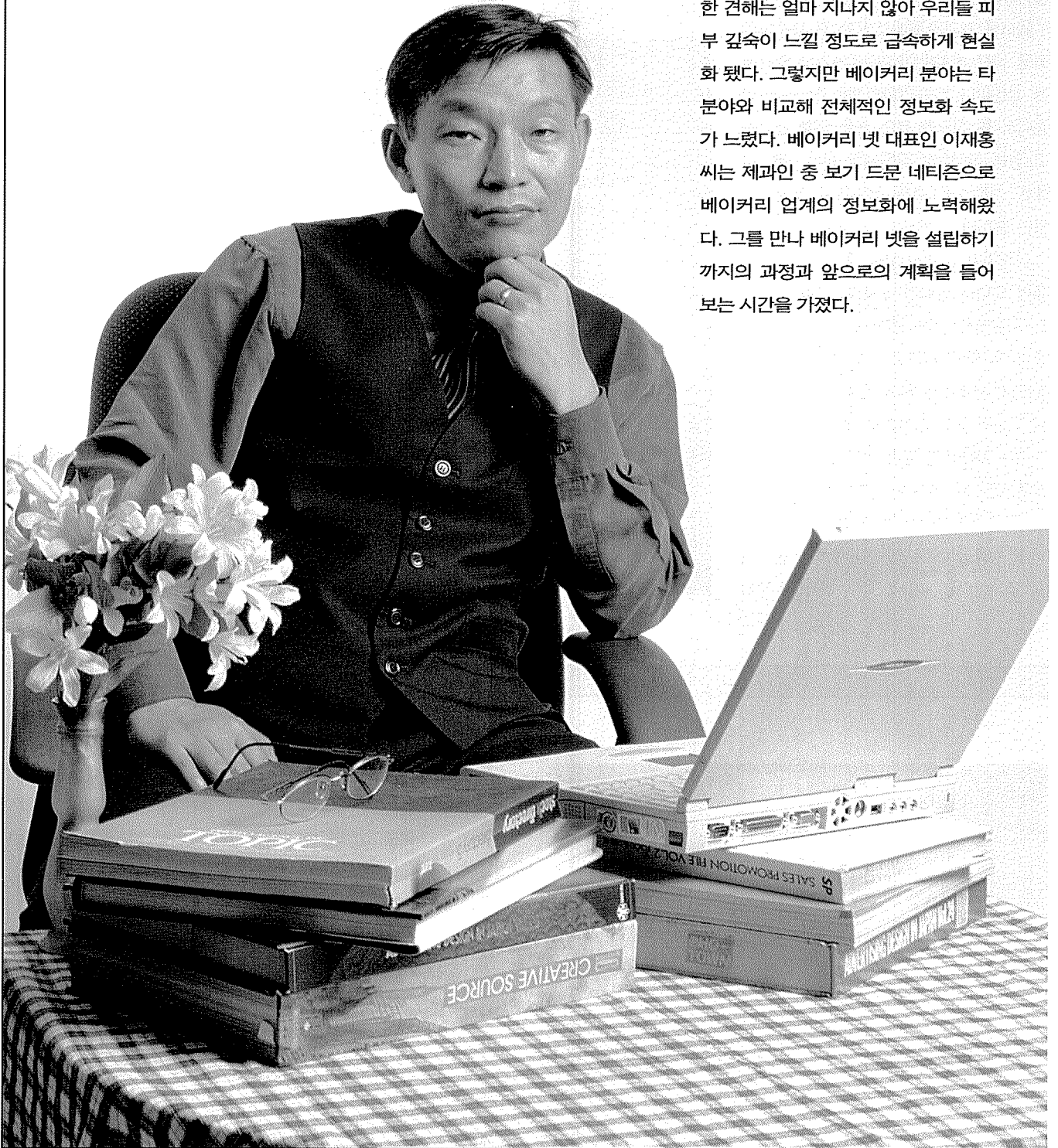


무한한 인터넷 세계로의 도전

베이커리 넷 대표 이재홍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 3의 물결”에서 21세기는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었다. 이러한 견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들 피부 깊숙이 느낄 정도로 급속하게 현실화 됐다. 그렇지만 베이커리 분야는 타 분야와 비교해 전체적인 정보화 속도가 느렸다. 베이커리 넷 대표인 이재홍 씨는 제과인 중 보기 드문 네티즌으로 베이커리 업계의 정보화에 노력해왔다. 그를 만나 베이커리 넷을 설립하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는 인터넷을 비롯한 첨단 미디어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베이커리 분야도 이 같은 추세는 예외가 아니어서 고도로 발달된 정보화 사회를 맞아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베이커리 넷 대표로 있는 이재홍(44)씨는 제과인 중 보기 드물게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인 97년부터 베이커리 분야의 인터넷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연구와 개척을 한 사람이다.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이제는 인터넷을 모르면 넷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시대가 됐다. 이재홍씨는 베이커리 분야도 인터넷을 통해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적 상태의 무한한 인터넷 세계에 뛰어 들었다. 남보다 앞선 생각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사이버 세상에서 출발했던 베이커리 넷(www.bakery-net.co.kr)은 이제 제과인들 사이에서 꽤 잘 알려진 인터넷 사이트로 성장했다.

베이커리와 인터넷

이재홍씨가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95년 광주에서 학원 강사로 재직할 때부터였다.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은 커녕 아직까지도 베이커리 분야에선 컴퓨터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돈을 들여 학원에서 쓸 컴퓨터를 손수 구입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베이커리업계에선 컴퓨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지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빨리 컴퓨터를 보유해야 된다는 생각에 우선 제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학원에서 배합표 정리 등 여러가지로 유용하게 쓰이면서 원장님이 컴퓨터 값을 주셨습니다.”

그는 광주에서 서울 리치몬드 학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제과 강의 틈틈이 컴퓨터 공부를 계속했다. 베이커리 분야에서 그에게 시원스레 컴퓨터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었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익혀나갔다. 원래 학창시절부터 수학을 좋아한 그는 컴퓨터 이용에 적성이 맞아 한 단계씩 어려운 분야로 발전해 나가면서 재미를 느꼈다.

이재홍씨는 인터넷 활용을 시작하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가능성들을 하나 둘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얼마 안 있어 사이버 세계인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직감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그는 97년 12월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도메인을 등록하는 등 정식 절차를 밟아 베이커리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리 넷(bakery-net)을 설립한다. 사업을 시작하기엔 아직은 시기상조였지만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고 일해야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막상 사업허가를 내려고 세무서에 갔더니 담당 직원은 아직 수익성도 없는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쓸데없이 허가부터 내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하더군요. 그러면서 일단은 되는대로 하다가 혹시 잘 되면 그때 가서 허가를 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디다. 인터넷은 좋은 질로 승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누가 빨리 선점하는 것이 큰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바꿔버린 숯바꼭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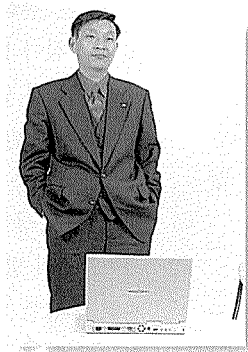
제과인 중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곳곳하게 살아온 이들이 많다. 이재홍씨의 경우 단순히 어려웠다는 것과는 다른 한편의 소설 같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 그는 6살 때 부모님과 헤어진 이후 14년간을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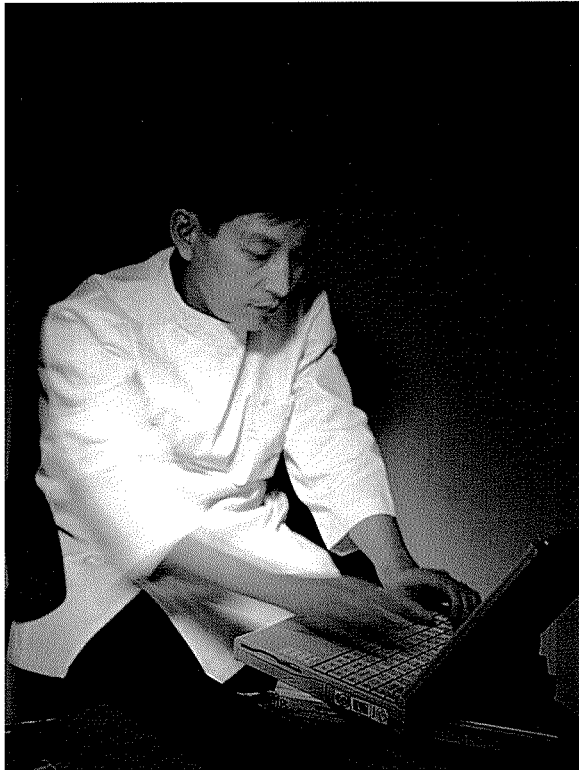
“어떻게 보면 저보다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 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헤어진 후 언젠가는 집에서 저를 꼭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꿈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고향은 전라남도 송정리로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공군대령이었고 형제·자매 중 막내 아들인 그는 유복하게 자랐다. 이재홍씨는 6살 때 동네 아이들과 숯바꼭질을 하던 중 무심코 역에 세워져 있던 기차에 올라탔다. 그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기차가 서울로 가는지 몰랐다.

타고 있던 기차가 멈춘 곳은 서울역으로 이때부터 그는 세상의 모진 풍파를 홀로 헤쳐 나가야 했다. 너무나 어렸던 그는 어떻게 지냈는지 다 기억할 순 없지만 집 없는 거리의 소년이 돼 1년간을 떠돌아 다녔다고 한다.

운명의 장난인지 1년이 지났을 때 눈이 작고 귀가 큰 그의 얼굴을 기억한 고향 어른과 우연히 서울역에서 만나게 됐다. 그 어른은 이재홍씨가 동네 대령집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알아보고 같이 고향으로 데리고 내려갈





차비를 했다. 그러나 고향 아저씨가 잠시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어린 그는 단속원에게 붙잡혀 후암동에 있었던 영락보육원으로 보내졌다.

부모님을 만날 기회를 놓친 그가 다시 고향을 찾아가 가족들을 만난 것은 약관의 나이인 스무 살이 돼서야 가능했다. 너무나 어렵듯한 기억이기 때문에 송정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강과 비행장이 있던 고향의 특징과 아버지가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도움이 됐다. 그렇지만 14년만에 상봉한 가족 중에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정신

“원래 이름은 이재용이었지만 보육원에서 이재홍으로 기록이 됐지요. 그곳에서 성장해 우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처음에는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초등학교 동창 집에 놀러갔다가 인생이 또 바뀌게 됐지요. 그 친구는 제과고등기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가 만든 빵을 보고 앞으로는 기술이 있어야 대우받는 시대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홍씨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우선 영등포에 있었던 봉제 공장에 들어가 밤근무를 하며 지냈다. 그는 베이커리일이 야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적응력을 키

운다는 생각으로 6개월 정도 일을 했다. 이듬해인 76년 제과고등기술학교 4기로 입학한 그는 1년 동안 열심히 제과기술을 익혔다. 그는 졸업 후 역삼동에 있었던 태극당에서 제과인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그렇지만 그곳은 일곱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 그가 원하는 쪽의 일을 배우기엔 제한이 있었다. 제빵부에 근무했던 그는 새벽 3시부터 제품을 만드는 힘든 생활을 했다. 1년이 지나도 보직이 바뀌지 않자 이재홍씨는 다른 곳으로 옮길 결심을 한다.

마침 고려당 본사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어서 고려당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냉동생지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낮에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부하러 다니고 야간에는 일을 하는 생활을 했다. 그러다 보니 쉬고 잠자는 시간은 3~4시간 밖에 되지 않았다. 당당시 그와 비슷하게 생활하던 제과기술인이 과로사 하자 직장 사람들 사이에 이재홍씨도 곧 쓰러질 거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그는 제과업계에 입문한 이후 진지하게 일에 임하는 한편 베이커리 분야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집에서 쉴 때도 머리맡에 메모지와 불펜을 준비해 두고 좋은 생각이 날 때마다 놓치지 않고 적어서 활용방안을 연구한다.

“컴퓨터를 활용한 베이커리 분야는 넓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포토 케이크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며 기존에 나와있는 관리 프로그램들은 제과점에서 그대로 쓰기엔 불편한 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재료의 배합을 이용해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제과점 전문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홍씨는 향후 베이커리 넷을 한층 더 업 그레이드 시켜 전자 상거래 및 사이버 제과학원 등의 포털(Portal) 서비스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제과인으로서는 제과인을 위한 인터넷 종합 서비스를 만들어 끊임없이 최신 베이커리 정보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늘도 그는 베이커리 넷 게시판에 올라온 이메일(E-mail)을 확인하고 질문의 경우 답을 찾기 위해 밤을 밝히며 연구하고 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개척하는 사람이 험난한 역경을 이겨내고 토대를 다지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것을 바탕으로 수월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황무지였던 베이커리 인터넷 세계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게 된 뒤에는 그의 숨은 노력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재홍씨의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본다. [계]

〈글·사진/ 정한성〉